

## 신용회복 지원자 5명중 1명 중도 탈락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사람 5명 중 1명은 협약이행 도중 연체 등으로 인해 중도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드뱅크 '희망모아' 프로그램 지원자의 중도탈락을 역시 30%가 넘어 현행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재정경제부와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우제창(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57만3천744명으로 이중 12만 818명(21.1%)이 협약이행 과정에서 중도 탈락했다.

개인워크아웃 중도탈락자 수는 지난 2003년 594명에서 2004년 2만426명, 2005년 6만1천598명으로 급증한 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3만8천200명이 신용회복 과정을 끝까지 이수하지 못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자영업자 등 부가세 탈루 원천 봉쇄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권춘기)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 불성실 혐의가 높은 자영업 법인 등을 집중 분석해 자료상 부정환급자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신고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로 신고대상자는 법인 3만7천명, 개인 3만2천명 등 모두 6만9천명에 달한다. 이중 지난 7월 1일~9월 30일 신규가입자(6천명), 환급 등으로 2006년 1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자(2만1천명),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자(5천명)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소·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 변호사업 등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업, 골프연습장·예식장 등 시설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 탈루수치가 큰 자영업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및 세원관리 내역을 종합분석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 지하철 상무역서 '꽃과 시민의 만남' 행사

광주원에농협화훼공판장이 주최한 '2006년 제 2회 꽃과 시민의 만남' 행사가 11~16일 광주 서구 지하철 상무역 일대에서 열렸다.

시민과 꽃의 만남을 통한 꽃소비 촉진으로 화훼농가 소득증대와 광주전남 화훼산업 발전을 꾀하기 위해 마련돼 올해 두 번째를 맞는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종 화훼 절화를 비롯해 꽃바구니·꽃다발·화환, 꽃꽂이 작품, 압화, 야생화, 꽃동산 정원, 동서양난, 풍란 등이 선보이고 꽃 관련 사진전과 그림전 등도 열렸다.

행사에는 현지 화훼작목반 등 화훼농을 비롯해 유통 중도매인, 품종회사, 꽃꽂이 작가협회, 조경업체, 농원, 육묘장, 꽃그림 및 압화제작 업체 등 광주전남지역 20개 화훼관련 단체가 대거 참가한다. 관람객에게 장미선물, 전통사물놀이 공연 등도 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 주택담보대출 다시 늘고있다

## 수완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분양 맞물려

## 9월 한달 1조7,000억...전달보다 2배 늘어

9월 한달간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조7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는 등 은행권의 대출 영업 강화와 대기 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추세 전환에 발맞춰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증가액은 은행간 주택담보대출 경쟁이 점점에 달했던 지난 4월과 5월의 증가액인 2조7천억원대에는 미치지 않지만 8월 증가액의 2배 가량에 이르는 규모다.

이사철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9월 1일 시행된 부동산 거래세 인하 조치, 전세난 등으로 대기 수요자들이 주택구입으로 돌아서고 있는 데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마케팅을 강화하

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37조2천333억으로 8월말 대비 1조7천558억원이 증가했다.

광주·전남지역 시중은행 창구에도 9월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발걸음과 전화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실제 대출로 연결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지역 은행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 4월과 5월 2조7천억원대로 정점에 달했다가 6월말 1조4천746억으로 감소한

뒤 7월 1조3천200억원, 8월 8천897억원에 머물렀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신한은행은 9월 한달 사이에 5천800억원이 늘어 4개 은행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 자산증대 차원에서 마케팅을 강화한 데다 용인 동백지구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잔금 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돼 특정 영업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지난달보다 4천928억원이 증가했으며 우리은행은 4천73억원, 하나은행은 2천749억원이 각각 늘었다.

광주지역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데다 수완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분양 시점과 맞물려 주택 구입자들의 대출 수요도 늘어날 공산이 커 향후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브랜드 세일중** 지난달 말 시작된 광주신세계의 '브랜드 세일'행사를 찾은 고객들이 핸드백코너에서 가방을 살펴보고 있다. 전체 입점 브랜드의 30%가량이 참여한 이번 브랜드 세일은 오는 12일까지 계속되며 할인율은 10~20%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 대형유통업체 "추석 장사 잘했네"

### 매출액 지난해보다 50% 늘어

불경기속에서도 이번 추석기간동안 광주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의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많게는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화점은 고급선물 세트, 대형마트는 중저가 실속형 상품이 인기를 끄는 등 선물세트 양극화가 심화됐으며 와인과 홍삼 등 건강 및 웰빙제품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5일까지 17일간의 추석매출을 분석한 결과 복합 쇼핑타운 개념으로 지난 7월

개장한 이마트의 영향으로 매출이 지난해 추석에 비해 50.5% 늘었다고 8일 밝혔다.

추석 선물 인기 품목은 굴비가 1위를 차지했고, 한우, 홍삼, 와인, 양주, 선어, 청과, 갈비 순이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18일동안 추석행사를 벌인결과 매출이 지난해 추석보다 5.7% 늘었다.

분야별로는 상품권 매출이 전년에 비해 10% 늘어난 가운데 1층 잡화 매출도 6.4% 증가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유류세 절반이상은 세금

### 휘발유 57%·경유 47%

우리나라의 휘발유가격 중 세금비중은 57.3%, 경유는 47.3%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류가격에 세금이 많이 붙음에 따라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대비 휘발유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했다.

8일 재정경제부가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평균치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휘발유가격 1천545원 중 세금비중은 57.3%, 1인당 경유가격 1천298원 중 세금비중은 47.3%를 기록했다.

OECD 소속 각국별 휘발유가격 대비 세금비중을 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미국은 13.4%, 캐나다는 29.4%, 일본은 44.0%, 스페인은 49.6% 등으로 대부분 우리나라에 비해 낮았다.

하지만 이탈리아(57.8%)나 프랑스(61.0%), 독일(61.3%), 영국(63.7%)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 비해 휘발유가격 대비 세금비중이 높은 나라도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소득(GNI)(1만6천291달러) 대비 휘발유가격(1인당 1천655달러) 비율은 10.2로 스페인(7.1), 이탈리아(6.9), 영국(5.8), 독일(5.4), 프랑스(5.0), 일본(3.5), 캐나다(3.2), 미국(2.0)과 비교해 훨씬 높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변액보험 약관대출 허점 악용 고수익 창기는 암체족 기승

일부 변액보험 가입자들이 이 상품의 허술한 규정을 악용해 약관대출을 받고 이를 되갚는 수법으로 상당한 차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보험 설계사들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같은 편법을 은연중에 홍보하고 있고, 증시 장기침체시 고객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8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간접투자형 보험인 변액보험 판매가 급증하면서 일부 계약자들이 추가하락 시점에 변액보험 약관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받은 후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대출금을 되갚는 일종의 주식매매를 통해 고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

이같은 현상은 변액보험 약관대출의 기준가를 대출신청 및 상환일의 전일 증가로 산출하는 제도적 허점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즉 일반펀드 상품의 경우 기준가 적용 및 환매금액 지출이 환매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1~3일이 지나야 하지만 변액보험은 전날 증시 종가로 당일 바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 상환도 전날 종가로 바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A씨가 약관대출을 1천만원 받았고 대출금 수령후 상환때까지 펀드의 기준가가 1천원~900원→1천원으로 등락을 했다고 가정하면 A씨는 이 거래를 통해 며칠만

▲변액보험=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모아 펀드(가금)를 조성한 후 우량주식과 우량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배분해 주므로 보험금이 변동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을 말한다.

에 200만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다육이 일부 보험 설계사들이 이같은 편법을 고객확보를 위한 마케팅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 김모(42·광주시 서구 풍암동)씨는 최근 외국계 보험회사 설계사로부터 변액보험 약관대출을 이용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변액 유니버설 펀드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즉 일반펀드 상품의 경우 기준가 적용 및 환매금액 지출이 환매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1~3일이 지나야 하지만 변액보험은 전날 증시 종가로 당일 바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 상환도 전날 종가로 바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A씨가 약관대출을 1천만원 받았고 대출금 수령후 상환때까지 펀드의 기준가가 1천원~900원→1천원으로 등락을 했다고 가정하면 A씨는 이 거래를 통해 며칠만

“이같은 거래가 가능한 것은 상품약관이나 규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부정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변액보험의 펀드도 일반펀드와 동일한 환매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전남 농축산물 이름 지어주세요”

### 고부가가치 브랜드 개발 농협, 일반인 대상 공모

‘좋은 이름 지어주세요’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농산물 규모화 촉진 및 상품성 향상을 통한 브랜드마케팅으로 농산물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농산물 광역브랜드를 개발하기로 하고 일반인 및 계몽직원을 대상으로 이름 공모에 나섰다.

지역분부는 기존의 품목 공동브랜드인 ‘풍광수토(쌀)’와 ‘순한한우(축산)’가 전남농축산물 판로확대

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이번에 ‘청과·채소류’를 대표하는 ‘제3의 브랜드’를 개발, 품질관리와 함께 품목별 연합사업을 활성화해 우리 농산물 가격 동반기운을 지속적으로 실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반인 응모접수는 9일부터 16일까지 전남농협 인터넷홈페이지(http://jeonnam.nonghyup.com)를 통해 이뤄지며, 최우수상 한편에 50만원 등 총 5편에 100만원의 농산물 상품권을 제공한다. 문의 220~7526(농산물연합사업단).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가정의 건강을 위한  
세심함 속에는 신우 환기유니트  
Airpass 있습니다

신우환기유니트

www.hongsaei.kr 이태라지구 전문점

1. 1인용 - 2인용 - 3인용 - 4인용 - 5인용 - 6인용 - 7인용 - 8인용 - 9인용 - 10인용

2. 1. 2층 - 3층 - 4층 - 5층 - 6층 - 7층 - 8층 - 9층 - 10층

3. 1. 2층 - 3층 - 4층 - 5층 - 6층 - 7층 - 8층 - 9층 - 10층

4. 1. 2층 - 3층 - 4층 - 5층 - 6층 - 7층 - 8층 - 9층 - 10층